

출판인쇄 시스템의 경제적 패러다임 넘어서자

최영일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영업부 차장



“국배판이니, 4·6배판이니 하는 판형 고착화 현상은 인쇄용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1:√2 비율의 결과물이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고가치인 경제적 효율성을 극복해야 한다.”

기획과 편집, 총론적인 디자인이 출판의 영역이라면, 그런 창작 행위를 구체적인 실물로 재현해내는 것이 인쇄 영역이다. 따라서 인쇄인은 출판인들의 다양한 창의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충실한 제작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낼 것인지 고민하게 마련이다.

제작현장에서 발생하는 논란거리들을 원론적인 선에서 살펴보고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개선의 단초를 찾아낼 수 있다.

자연 색상 잉크로 재현하는 데 한계 많아

특히 삽화 작가들의 불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옅은 파스텔톤이나 화사한 형광빛의 창작물들이 칙칙한 인쇄잉크 색으로 전환돼 재현되기 때문이다. 또한 ‘안개비 내리는 늦봄에 아우성치며 솟아나오는 밝고 투명한 연두 빛 이파리 색’을 인쇄물에서 재현해낸 경우를 동서고금을 통틀어 나는 보지 못했다.

인쇄색상 분류의 기본은 빛의 분석이다. 빛의 파장은 몇 나노미터(1nm는 1백만분의 1mm)에서 수 km에 이르는 것도 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이 인식할 수 있는 가시광선은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에 불과하다. 원색 분해기(스캐너)는 인쇄용 원고에 빛을 투과해 400~500 나노미터의 파장을 청, 500~600 나노미터를 황, 600~700 나노미터를 적으로 분류해낸다. 여기서 세가지 색상이 합해진 색이 먹으로 표현된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대 천만가지 정도의 색상들을 청, 황, 적, 먹의 인쇄잉크만으로 재현하는 기술적인 한계 내에 인쇄산업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인쇄물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면 네가지 색상의 점만이 지면을 메우고 있다. 색상 차이는 점의 농도 가감에 의존할 뿐이며, 그것의 형태파악은 사람 눈의 착시현상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여기서 세상의 진실체가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한도 내에 존재하는가의 논란은 접어두기로 한다.

다만 인쇄물에서 색상재현의 허용편차를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출판영역과 인쇄제작 영역 사이에 합리적인 합의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출판물도 극단적으로 분류하면 대량생산 시스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공산품이다. 즉, 기계설비에 의한 생산과정을 거친다는 의미다. 그런데 인쇄기계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크기의 인쇄용지를 재료로 쓰도록 설계돼 있다. 국전기계니, 4·6 반절기계니 하는 명칭이 이를 말해준다. 거꾸로 인쇄용지의 크기는 인쇄 기계의 설계에 영향을 줬다. 20세기에 들어 독일의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오스트발트(Ostwald)는 대량생산 시스템에 맞는 인쇄

용지 규격화에 대해 연구했다. 용지를 이등분해서 접었을 때 계속해서 가로, 세로의 비율이 같도록 수학적 비례를 적용시켰는데, 이것이 가로1 대 세로√2의 비율이다. 여기서 A계열의 용지면적을 1㎡로, B계열의 면적을 1.414㎡로 고정시켰고, $x \times \sqrt{2}x = 1$ ㎡의 등식에 의해 가로 841mm, 세로 1,189mm라는 이상한 수치로 된 A계열의 용지가 규격화됐다. 이런 이론적 근거는 유럽의 용지 규격으로 채용됐으며, 이어서 일본 공업규격으로도 공고화됐다. 다만 일본 B계열의 경우 용지면적을 1.5㎡로 약간의 차이를 뒀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공업규격을 채택한 경우다.

‘경제법칙’에 따라 판형 규격화돼

이후 일본에서 국전지(636×939mm), 4·6전지(788×1091mm) 개념이 쓰였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돼 인쇄용지 시장을 지배하게 됐다. 인쇄용지와 인쇄기계의 정형화는 제본설비에도 영향을 미쳐 이제 우리는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대량생산 시스템의 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됐다. 국배판이니, 4·6배판이니 하는 판형 고착화 현상은 인쇄용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1 대 √2비율의 결과물인 것이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우리의 최고가치를 극복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독자와 발행인과 제작자들 사이에 합의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다.

색채재현에 관해 별색개념, 인쇄판 소부시의 최소망점 재현문제, 잉크 및 용지의 품질문제, 인쇄주변기기 운영상의 숙련문제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또한 판형의 다양화 문제에 있어서도 경제적 효율성 이외의, 가장 안정적 형태 가운데 하나인 1:√2비율의 창조적 파괴에 대한 논란도 속제로 남겨뒀다. 하지만 생략된 부분들이 오히려 출판, 인쇄영역의 당면과제임을 생각할 때 진지한 탐구 및 자기비판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

최영일씨는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부터 평화당인쇄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